

사회적 정체성과 스피치 패턴의 연관을 중심으로 한 T.V. 드라마 교육*

최 인 자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차례>

1. 서론: 매체교육의 국어교육적 접근
2.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매체, 그리고 문해력 교육
3. 드라마에 재현된 스피치 패턴 비평
: 드라마 <아줌마>를 중심으로
4. 결론

1. 서론: 매체교육의 국어교육적 접근

국어교육에서 매체교육은 어떤 위상을 지니며,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어교육에서 이를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그 틀을 마련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 매체는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형성에 매우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매체를 시청각 교재라는 교육 공학적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어 능력 향상에서 매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국어능력 향상에서 매체교육은 어떠한 측면을 담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2000년도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매스 미디어와 언어문화교육"의 과제 수행으로 이루어졌음.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일반적인 미디어교육과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매체교육과의 관계 설정 문제이다. 매체교육은 국어교육만의 독자적 영역은 아니며 제도 내적, 외적 차원에서 축적된 자기 논리가 있다. 일반적인 매체교육과 국어교육 내에서의 매체교육은 같은지 다른지, 또 다르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일은 국어교육에서의 매체교육 정체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둘째, 문해력 개념의 확장 문제이다. 전통적 문해력 개념은 '개인 인지' 중심의 표현과 이해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문맹'과 '비문맹'의 이분법으로 성립된 것이다. 하지만 매체교육에서 논의되는 문해력 개념은, 언술 행위와 사회 문화적 맥락과의 교섭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문맹'/'비문맹'의 단순 이분법보다는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실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¹⁾ 이런 점에서 매체교육 논의는 텍스트나 매체의 양적 확장을 넘어서 국어교육의 질적 변화를 함의하는 매우 본질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단, 국어교육에서 매체교육 논의는 문해력에 대한 새롭고, 확장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어교육에서의 매체교육 방향성에 대한 기존 논의 중,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매체를 통해 '당대의 살아 있는 언어문화'를 교육할 수 있다는 입론이다.²⁾ 이런 입론은 근본적으로는 국어능력 향상의 측면에서 매체교육의 효용을 문제삼는 것³⁾이며 그 효용을 문화

1) Hobbs Renee, "Expanding the Concept of Literacy", Kubey Robert (Ed), *Media,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Transaction Press, 1996.

2) 박인기 외,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2000. 김동환·이도영·염은열·서유경,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화화의 방법", 2000년 학술발표회, 서울대학교 교육종합 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3) 박인기, "미디어 텍스트를 어떻게 국어교육 내용으로 가져올까", "미디어 텍스트와 국어교육의 상호성", www.language-culture.net/koredu.html.

적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다. 곧, 매체를 통해 ‘지금, 여기’의 현실 언어를 국어교육에 수용함으로써 탈맥락적 기능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언어를 교육할 수 있다는 이해가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입론을 수용하되 사회, 문화적 문해력 이론으로 그 이론적 정당화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 범주로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사용 패턴’을 제안할 것이다. 연구 대상은 ‘드라마’라는 미디어 장르로 특화하였다. 하지만 이 범주는 다양한 장르들을 가로질러 포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⁴⁾

논의 절차상, 먼저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의 문해력 개념을 살펴보고 국어교육에서 매체교육의 위상을 논의하기로 한다. 문해력을 사회, 문화적 과정으로 접근할 때 언어는 고립된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과정’의 큰 틀 속에서 이해된다.⁵⁾ 언어 활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언술 주체가 몸 담고 있는 사회적 제도나 권력 관계, 문화적 관습 등의 거시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따라서 특정의 언어사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특정 공동체에서 사회화되는 과정과 밀접히 연루되어 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요구하였던 언어 능력과 근대 산업화 시대, 대학 학력고사에서 요구하였던 언어 능력, 그리고 21세기 새롭게 요구되는 언어 능력의 차이들이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이 사회 문화적 적절함에 동화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언술 활동을 통해 기존의 권력 관계를 변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등의 사회, 문화적 실천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문해력을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언어를 넘어선 거시 맥락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문맹과 비문맹’, ‘잘 쓰고(good writing)/ 못 쓰고(bad writing)’의 이분법적 분류에서 벗어나 정체성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문해력들(literacies)을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⁶⁾

4) 따라서 이 논문은 ‘드라마’라는 장르의 특수성보다는 드라마 언어의 언어문화적 특징이라는 일반성에 관심을 둔다.

5) 사회문화적 관점 교육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문해력 교육에서도 변화를 불러들이고 있다. Rene Hobbs는 '실제 학습' authentic learning 등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확장된 문해력을 위한 세부 주제로, 학습자 문화와 학교 교실의 거리 좁히기, 다문화적 교육, 가정교육과의 연관, 학습자들의 권력화(empowerment)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것은 서구 특정 국가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지만, 근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참조할 점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언어 학습과 언어 기능을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읽고 쓰기 활동이 과정과 결과, 내용이 통합적으로 결합된 맥락 속에서, 또 의미있는 활동과 경험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구안하는 내용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⁷⁾

이런 변화된 문해력/ 문해력 교육 개념에서 본다면, 국어교육에서 매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매체는 다양한 집단들간의 소통과 교류를 매개할 뿐 아니라 그 공동체의 상징체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매체는 당대의 언어문화들을 재현하기도 하고 또 주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개인의 언어적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자들의 기사쓰기 관습에 불과한 6하 원칙이 설명적 서사의 기본이 되고, 양비론 혹은 양시론과 같은 신문사설의 쟁론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예가 그것이다. 그나마 이러한 예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영향력이다.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도 있다. 특정 집단의 언어, 특정 주제에 대한 언어를 전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다른 집단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특정 사안을 파악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생각해보자. 대통령의 언어, 노동자들,

6) James Paul Gee, *Social Linguistics and Literacies*, Taylor & Francis. 1996. 이들 문해력들은 미국과 같은 다문화주의에서 다중문해력(multi literacy) 개념으로 사회언어학에서는 변이체 (variation)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다.

7) Rene Hobbs, "Expanding the Concept of Literacy", Robert Kubey (Ed), *Media,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Transaction Press, 1996.

남자들, 혹은 여자들이 말하는 방식들은 얼마나 전형화되어 있는가. 또 대중매체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도 언어의 스테레오 타입화된 유형을 지속적으로 재생한다. 가족에 대해, 사회적 갈등에 대해, 환경에 대해 매체에서 말하는 방식들은 특정의 방식으로 유형화되거나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전형화된 언어들은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분명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언어적 사회화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매체의 언어들은 매체의 상업성과 이데올로기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매체에 재현된 특정 집단의 언어는 그 집단의 실제적 언어가 아닐 수 있으며,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 방식은 다른 견해들을 배제한 독단적인 것이다. 여기서 매체가 재현하는 혹은 생산하는 당대 언어문화를 ‘교육’할 필요성이 생긴다. 교육은 ‘비판’을 전제한다.

이제까지 문해력 교육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매체교육의 국어교육적 위상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요약컨대, 당대 언어 문화를 비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매체교육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문제는 이런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범주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회·문화적 정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물론 정체성 논의는 국어교육에서 이미 낫설지 않다. 언어교육이라는 일반 명사에서 국어교육(한국어교육)이라는 특수 명사로 전환하면서, 고전표현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중요하게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언어문화를 교육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이전에,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특정 사회의 맥락에 맞게 언어를 교육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정체성은 단 하나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혼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함께 사회적 정체성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민족적 정체성이 국어를 통한 상상적 공동체로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기획 속에서 강조된 측면이 있다⁸⁾고 한다면, 이제는 21세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보화 시대, 실제 모국어 학습자가 삶의 맥락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보다는, 다양한 현실적 공동체가 더 유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민족의 거대 공동체 내부에는 서로 이질적인 다양한 집단들이 소속되어 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언어사용 방식 면에서는 집단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변이체 variation⁹⁾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공동체는 이 언어적 변이체를 공유함으로써 성립한다면¹⁰⁾, 사회적 정체성에 따른 언어적 변이체는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범주라고 본다.

본고에서 특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학력과 성별에 따른 언어적 차이이다. 학력 중심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심 텍스트는 2000년 10월에 MBC에서 방영하여 사회적 논쟁을 불러들인 드라마 <아줌마>이다. 이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는 부부의 이혼 과정을 통해 이른바 저학력 여성 집단인 ‘아줌마’와 고학력 남성 집단인 ‘교수’(지식인) 집단의 정체성 차이를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8) 서준섭, “교과서와 사회 문화적 맥락”,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1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9) ‘변이체’란 개념은 같은 언어 내부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방언을 지칭한다. 같은 모국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이나 지역, 성별, 연령 등의 사회 내 위치나 삶의 방식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은 달라진다. 이 변이체는 문법보다는 ‘언어 사용 방식’이나 ‘담화’의 범주에서 확인되며 (Gee, 1991) 또한 언제 어디서나 반복되는 엄밀한 모델이라기보다는 그 집단만이 특징적으로 ‘선호’하는 ‘패턴’이라는 다소 유연한 특징을 지닌다. 이 개념은 언어적 차이를 언어 외적 요소의 차이에서 설명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10) John J. Gumperz Ed. Language and Social Ident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매체, 그리고 문해력 교육

1) 정체성과 문해력의 연관

정체성은 '누가' Who is의 특성을 해명하는 범주이다. 어떤 집단은 사회에서 특정의 지위와 역할을 지니며 이 과정에서 그들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행동과 사고 방식, 가치관에서의 차이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것이 사회적 정체성 social identity 이다. 이는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별짓는 기능을 담당하며, 한 집단 내에서는 연대감을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는 배타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¹¹⁾ 물론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정체성의 범주 자체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존재의 역할이나 규범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에 중요하게 개입한다는 사실 역시 부정하기 힘들다. 여자나 남자나 하는 성별문제, 또 점원이나 교사나 농부나 하는 직업문제, 또 사회적 계층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과 의식을 결정하고 또 타인이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특정의 코드가 있는 것이다.¹²⁾ 근대 이후, 사회나 전통이 부가하는 '주어진 정체성'은 개인의 성찰과 노력에 의해 유연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특정 유형의 정체성 모델은 개인 행위를 제약하는 문화적 코드로 작용하고 있다.¹³⁾

문해력을 사회, 문화적 과정으로 보았을 때, 정체성과 문해력이 지니는 관련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정의 사회적 정체성은 언어를 통해 형성되고 또 유지되기 때문이다.¹⁴⁾ 정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심리적,

11) James Paul Gee, *Social Linguistics and Literacies*, Taylor & Francis. 1996.

12) Bernard Spolsky, *Socio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김재원·이재근·김성찬 역, 『사회언어학』, 박이정, 2000

13) 더글라스 켈너, 김수정·정종희 역, 『미디어 문화』, 새물결,

14) John J. Gumperz Edt. *Language and Social Ident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의식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어 나간다. 정체성이 먼저 있고 그것을 반영하는 언어가 있다는 식이 아니라, 특정 언어사용 방식을 통해 서로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정체성도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역할을 드러내는 사회적 표지이며 동시에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전제로 한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언어적 변이체를 공유함으로써 가능하다.¹⁵⁾

이처럼 변이체 개념을 활용하여 문해력의 차이를 설명할 경우, 문해력은 단일한 표준을 지닌 하나의 것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해력들(literacies)로 분화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언어 역시 '체계'라기보다 구성체(formation)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문맹/비문맹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 문화적 위치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언어 사용의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의미있는 언어문화의 자원(resource)으로 접근할 수 있어 유의미하다.¹⁶⁾

특히, 구어 사용 orality에서 이 문제는 각별하다. 기존의 orality는 literacy의 대립 관계 속에서 이해되었으며 literacy에 못 미치는 하위적인 능력으로 설명되곤 했었다. 가령, literacy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언어사용이 가능함에 반해, orality는 잉여적이고, 비일관되는 언어라는 식의 인식이 그것이다. 그래서 전자는 후자보다 더 우월한 문해력으로 이해되었고, 후자의 다양한 특징들은 해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Gee의 설명처럼 문해력이 사회, 문화적 실천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각기 다른 사회,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⁷⁾ 구비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자 중심의 엘리트 문화를 상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처럼, Orality 문제 역시, literacy/orality의 권위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언어 문화 자원의 차원에서 그 다양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회·

15) John J. Gumperz,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16) 줄고, "장르의 경쟁성으로 본 서사표현의 문화원리", 국어국문학 127호. 2000.

17) James Paul Gee, *Social Linguistics and Literacies*, Taylor & Francis. 1996. 3장 참조.

문화적 정체성'의 범주는 매우 핵심적이다. '말'은 분명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문화적 지향을 드러내는 사회적 표지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¹⁸⁾ 이 개념으로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언어 사용 패턴을 유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체성 범주는 매체 분석에서도 중요한 범주가 된다. 대중 매체는 일종의 의례로 문화 통합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 형성 기능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나 영화, 드라마 등 대중매체의 상업적 성공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정체성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광고되는 물건은 물건 그 자체로서의 특징보다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정 정체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재현한다. 이런 점에서 매체 언어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생산 혹은 재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2) 비판적 문해력 개념의 재개념화

이처럼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이 제반 문해력을 설명하는 주요 범주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정된 것으로 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떤 집단의 특징적인 역할, 지위, 행위, 의식은 분명 있지만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실체나 본질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체성' 역시 담론 차원에서 존재한다. 이 집단은 저러하고, 저 집단은 저러하다는 식의 담론의 힘을 빌어, 사회적 정체성은 생산 혹은 재생산된다. 이른바, '정체성'은 정치학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매체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과 문해력'은 비판적 매체교육의 기획 속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매체교육에서 '비판' 개념은 매우 본질적이다. 물론 '비판'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개념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맥락에서 능동적으로 읽

18) 이 관련성은 화법 교육에서 강조된 바 있다. 임철성, "국어화법의 성격 고찰", [www. language-culture.net/koredu.html](http://www.language-culture.net/koredu.html).

19) 더글라스 켈너, 김수정·정종희 역, 『미디어 문화』, 새물결. 1997.

는 행위에서 출발하지 않고 교사의 주도하에 읽기를 수행하여 권위적인 수업을 재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²⁰⁾ 주로 70-8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비판적 교육은, 매체 텍스트의 심층에 깔려 있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90년대 이르러서는, 주로 수용자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용자들은 어떠한 매체를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며, 이것은 수용자의 언어사용이나, 의복 등을 통해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등의 '실제적인 연구'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학습자들의 매체 수용은 결코 수동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기 삶의 맥락에서 나름의 능동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매체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비판적이고 선택적인 시청자가 되며, 또 자신의 시청 행위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줄 알고 이를 자신이 매체를 생산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²¹⁾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매체 텍스트 그 자체보다도 매체와 맥락(수용 맥락, 생산 맥락)의 관련성을 중시하며, 학습자를 '성찰'과 '평가'의 주체로 내세워 매체의 메시지를 분석하는 '인지적 활동'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실천²²⁾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적 미디어 교

20) 이러한 흐름은 미디어 교육에 관한 특집호, *Journal Of Communciation* 의 1998 겨울호에 실린 논문들에 잘 나타나 있다. 대표적 논문은 Justin Lewis & Sut Jhally, *The Struggle Over Media Literacy*, *Journal Of Communciation Winter 1998*. James A. Brown, "Media Literacy Perspectives", *Journal Of Communciation Winter 1998*. Renee hobbs, "The Seven Great Debates in the Media literacy Movement", *Journal Of Communciation Winter 1998*.

21) Donna E., Alvermann & Margaret C. Hagood, "Critical Media Literacy :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in 'New Tim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Jan/Feb 2000. Vol. 93.

22) '실천'은 Giroux, H의 도움을 받아, 창의성이 사회 문화의 현실적 변혁으로 확장될 때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쓴다. Giroux, H. (1993), "Literac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 Lankshear and p. McLaren (eds), *Critical Literacy: Politics, Praxis and the Postmodern*, Albany, NY: State

육²³⁾이 매체에 대한 심층적 읽기 능력을 지닌 교사의 교육에 기대다 보니 정작 학습자는 침묵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시청자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매체를 평가하고 또 자신의 관점에서 매체를 생산함으로써 스스로 말하는 주체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매체는 이제 매체 전문가들의 특정한 언어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체 교육에서도 매체 텍스트의 메시지 그 자체보다도, 다양한 집단에 의해 다양하게 이해되는 매체의 다성적 의미, 또 다른 텍스트들, 다른 매체들과의 매체 상호적 관련을 강조하고 있다.²⁴⁾

이런 흐름은 정체성과 스피치 패턴의 관련성을 교육하는 방법에 특히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 자신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리고 이 다른 방식들은 각 집단의 고유한 배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T.V.드라마를 활용하여 당대 집단의 스피치 패턴을 교육하는 방식 역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또 자신의 문화를 성찰하며, 한 걸음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3) 사실, 성찰과 소통, 표현을 강조하는 새로운 미디어 교육 역시 기존의 '비판' 개념을 재개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 문해력 개념에는 크게 네 관점이 있다. 1) 인지론적 관점, 2) 문화론적 관점, 3) 탈구조주의적 관점, 4)페미니즘적 관점이 그것이다. 1)은 개인의 인지적 추론, 분석, 판단 행위를 중시하며 2)는 공동체 내 집단들의 사회적 권력 관계를 3)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찰과 탐구를 4)는 여성의 억압과 해방을 위한 전략을 중시한다. Donna E., Alvermann & Margaret C. Hagood, "Critical Media Literacy :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in 'New Tim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Jan/Feb 2000. Vol. 93 전통적인 '비판적 사고 능력' 개념이 1)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성찰과 비평을 강조하는 새로운 비판 개념은 3)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하였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 Luke Carmen, "Media and cultural studies in Australia,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May 1999.

더 나아가 스스로 이러한 언어문화에 창조적으로 개입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전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매체 텍스트 외에도 다양한 수용 맥락, 생산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학습자를 분석과 평가, 소통의 주체로 내세우는 방안을 구안하도록 하겠다.

3. 드라마에 재현된 스피치 패턴 비평 : 드라마 <아줌마>를 중심으로

1) 드라마에 재현된 스피치 패턴 분석

: '지식인'의 권력 지향적 스피치 vs '아줌마'의 윤리 지향적 스피치

T.V. 드라마는 인기 있는 미디어 장르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교육성보다는 오락성이 더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인물들의 '어법'이나 '문법' 등의 부분적인 측면만 국어교육에 수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에서의 언어들은 그러한 부분적인 단위로만 존재하지는 않고 특정 상황에서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을 재현하는 수단으로 그려진다. 인물들의 언어를 다양한 맥락 속에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드라마의 인물은 사회적 전형성이 강해 사회구조나 사회 계층,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²⁵⁾는 점에서 인물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그들의 스피치 패턴을 연관짓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인물의 성격이나 말에는 개인적 고유함과 사회적 전형성이 나란히 있다. 또, 어떤 드라마는 개인적 고유함을 또 다른 드라마는 사회적 전형을 강조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입론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대중매체로서의 드라마는 사회적 공공 영역에서 소통되는 것인만큼 특정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

25) 박인기 외(2000), 앞의 책, 94-95면.

다는 점은 분명하다.²⁶⁾ 드라마 <아줌마>의 작가, 정성주는 인터뷰에서 드라마 인물과 그들의 언어 창조에 개입하는 사회적 제약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T.V 드라마에서 자유롭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술집 여자’나 ‘깡패’에 속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래서 자신은 ‘고졸 출신’ 인물을 기용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고, 현실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진술은 드라마 속에 재현된 언어가 특정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특히 그 사회가 지배적으로 생산하고 있는)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사회성과 개인성의 비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드라마 텍스트를 놓고 직업별, 성별, 계층별로 유사한 인물군을 설정한 뒤, 이들의 스피치 패턴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분석하는 활동 등이 가능할 것이다.

드라마 <아줌마>의 경우, 사회적 정체성이 개인적 특징보다 압도적이라고 판단되어 이 텍스트를 분석한다. 이 드라마는 한 부부의 이혼 과정을 통해, 부부라도 사회 문화적 정체성에 따라 그 스피치 패턴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고학력: 저학력, 지식인: 아줌마(민중), 남성: 여성의 매우 복합적인 층위들이 얹혀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극중 갈등을 고려한다면 중심적인 축은 ‘지식인’ 집단과 ‘아줌마(민중)’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드라마에서는 지식인의 언어는 권력 지향적 스피치 패턴으로, 아줌마 집단의 언어는 윤리 지향적 스피치 패턴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 학력별, 지위별 차이, 이에 다른 양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특정 관점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대화 상황을 모두 고려할 수 없기에, 각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쟁론 장르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26) 드라마에서 재현된 특정 집단의 이미지에 대해 사회적 분쟁이나 논쟁이 이루어지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집단의 이미지 형성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매우 핵심적이다.

(1) 대화적 추론의 패턴

어떤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대화적 추론'에 핵심적으로 개입한다.²⁷⁾ '대화적 추론'은 대화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말과 의도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는 데에 작용하는 추론과정이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는 대화의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것은 대화 참여 주체들이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과 지위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대목이다. 각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식은 대화 참여자의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결정지어, 이들 사이에서의 대화적 참여구조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면은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 단절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문1>

다음 날 새벽. 친구 집 (20회)

-친구는 책상 앞에. 삼숙은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 삼숙, 고뇌 어린 표정의 친구를 물끄러미 본다. 한참.

삼숙 애기 해.

친구 여보.

삼숙 ...

친구 날 용서 해.

삼숙 ...그 여자랑 잤어?

친구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제발, 제발 그런 오해는 하지 마.

삼숙 그럼 뭘 용서하라는 거야? 당신이 용서 받을 게 한두 가지야?

친구 (자른다) 나. 지원이 정말 사랑해.

삼숙 (뛰어)

27) John J. Gumperz,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진구 (울먹) 지원일

삼숙 (일어선다) 웃기구 있어. 중말, 야, 니가 무슨 사랑을 하나? 니까짓
게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해?

진구 (간곡) 여보.

삼숙 야, 장진구. (버럭) 니가 나를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이 등
신아!

진구 침실. 그날 밤 계속 (21회)

삼숙 그게 사랑이야? 영? 느이끼리 추켜주는 게? 그냥 '나 연애가 절구
싫어 환장했다구' 해. 그러믄 내가 동정은 해 줄 수 있어.

진구 화 내지 마 여보. 난 당신한테만큼은 솔직하구 싶어. 내가 당신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털어 놓겠니. 다른 남자들처
럼 이중적인 생활 난 못해.

삼숙 인젠 내 놓구 하시겠다? 정말 정신 못 차란다. 장진구. 이혼은 싫
구, 연애는 하구 싶구. 숨기자니 머리가 나빠 끝두 없이 들키구, 결
국엔 이렇게 웃기는 양심선언을 또 하구. 도대체 어떡하든 인간 되
니. 어떡하든.

진구 (버럭) 좀 진지하게 들어줄 수 없어?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
화 더 이상 못해. 난 그래두 서로의 독립된 자아를 존중하면서, 이
가정을 깨지 앓으려구 말이야.

삼숙 당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깨구 말구 해? 깨냐 마냐 그거는 내 손
에 달려 있어. 내가 빨개. 벗겨 내 놓으든 나가야 왜. 알어?

진구, 자못 분노를 누르며 획 나간다.

삼숙 발은 땀구 자. 이불에 냄새 배.

이 대화는 자신이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킨 뒤, 남편인 장진구가 고백
하는 대화 장면이다. 하지만 이들 대화는 원만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소통과 대화가 단절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마무리된다. 대화 진
행은 남편 장진구는 '부탁, 설득', 아내 오삼숙은 '반문, 문제제기'의 평행
선만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사

회, 문화적 배경 지식으로 대화 상황, 대화 참여 방식에 대한 추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진구는 자신은 지식인, 오삼숙은 민중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잘 못을 비는 ‘고백’의 장르이지만, 자신을 대화의 주도자로 삼는다. “용서해”로부터 시작한 말은 “이해해” 등의 일방적인 부탁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오삼숙은 따라 오는 것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장진구의 이러한 고백의 형식과 내용은 아내, 오삼숙의 특정 반응에 대한 기대에서 선택된 것이다. 여기에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과 아내의 관계, 각각 역할에 대한 사회, 문화적 지식이 작용한다. 그것은 자신은 ‘남편’이자 ‘지식인’이고 오삼숙은 ‘아내’이자 ‘아줌마’(저학력 여성)이라는 인식이다. 이런 지식인관에서 볼 때, 민중은 자신의 말을 따르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바람을 피우고 와서도 아내에게 조용히 훈계하는 조의 스피치를 구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아내 오삼숙은 장진구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지식인의 정체성에 대해 장진구와는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회, 문화적 지식으로는 지식인은 “진실이란 한 톨도 없고” “그 때 그 때 꾸며대기 바쁜” 존재이다.²⁸⁾ 그녀는 민중은 양심, 지식인은 거짓말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자신의 배경 지식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오삼숙은 장진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한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항상 뒤집어 놓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결국 나중에,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이는 “조용히 들어 주기를” 바라는 장진구의 견해와 매우 다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지식인의 허위를 깨우쳐 주어야 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이들 부부는 각각 남편과 아내, 지식인과 민중의 역할에 대한

28) 이 드라마에서 이런 인식은 ‘남편’으로서의 장진구가 아니라 ‘지식인’으로서의 장진구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 문화적 지식의 차이에 따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한 마디로 지식인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신과 아줌마 집단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줌마 집단은 그 권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편은 아내가 '진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대화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이 드라마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예문2>

침실. (20회)

-삼숙이 들어 온다. 친구, 우울하게 넥타이 끄르고 있다.

삼숙 (비아냥) 들어 왔어? 저녁은?

친구 생각 없어.

삼숙 생각이 없는 거야, 밖에서 맛있는 걸 먹은거야?

친구 (본다)

삼숙 (배개를 침대 위에 놓으며) 마루에서 잤더니 삭신이 쭈셔. 내가 여기서 자야겠어. 당신이 마루로 가. 애덜이 물으면 엄마한테 쫓겨났다고 하든지 말든지. (오르려는데)

친구 당신두 알다시피 내가 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잖아.

삼숙 겪은 게 아니라 저질러진 거지.

친구 어. 어쨌든.

삼숙 그렇다 치구.

친구 정말 온몸으루 그 파란만장한 생의 한 가운데를 지나오면서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삼숙 (또 시작이네..)

친구 동료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언론에서까지 나의 용기를 칭찬하구 박수 갈채를 보내지만 그게 다 뭐가 싶은 거야. 다 헛되구 헛된 거 아니겠어? .

삼숙 (그래서?)

친구 여보, 난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 영광의 뒀안길. 출구 어두운 그늘 속에 나 혼자 던져진 느낌이야. 제발 평범한 여자들처럼 바가지 끊지 말구. 내 이런 고통들 좀 이해해 줘.

-순간, 삼숙. 진구의 머리채를 힘껏 움켜쥐고 뒤흔들기 시작한다.

삼숙 어이구우 인간아.

진구 아, 아, 으악.

이 대화에서도 아줌마 집단은 지식인의 말하는 방식을 비난하고, 또 지식인 집단은 아줌마 집단과 대화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에는 이들 집단의 각기 다른 사회 심리학적 욕망이 드러난다. 지식인의 스피치 패턴은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고 이를 위해 타자를 대상화하는 권력 지향적 심리를 전제로 한다. 반면, 아줌마의 스피치 패턴은 소외된 집단들이, 기성 집단의 허위를 고발하려는 탈권력 혹은 권력 쟁취의 심리를 보여준다. 특히, 작가는 아줌마 집단의 시각에서 지식인을 희화화함으로써 지식인들의 인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조롱하는 사회적 의도를 드러낸다. 웃음은 기성의 사고, 언어 문법이 일탈하는 데에서 유발된다고 한다면, 이 드라마에서는 지식인들의 사고를 진부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것은 ‘아줌마’ 집단의 자기 정체성 회복 과정이 새로운 스피치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지식인 집단이나, 기득권 층에 의해 ‘규정’되었던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극중 전 반부(1회-10회), 전통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에 그녀에게는 대화의 주도권이 전혀 없는 존재로 나온다. ‘듣고, 이해하고, 따르라’는 식의 관습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후반부 이 드라마에서 아줌마는, 이러한 정체성이 그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것이며, 그들조차 의당 당연한 것이 아니라, 허구로 가득차 있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이체들을 생성하고 있다. 그녀들은 건강한 생활인으로 규정하고, 주체적인 자기 인식을 갖는다. 그리고 언어의 진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윤리 중심의 스피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언어적 변이체는 사회·문화적 실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내용 구성의 패턴

다음, 두 사람의 스피치 내용 구성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쟁론적인 스피치 상황에서 그 중심 내용은 자신의 주장, 그 주장의 근거,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는 방식 등으로 구성된다. 두 사람은 내용 구성 면에서도 차이를 보여준다. 예문 1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장진구는 이념적 당위성을 중심으로 한 논리 중심의 스피치를 구사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순수함, 권위, 남다른 등,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명히 구별짓고, 자신의 자존심과 입장 등을 강조하는 '권력 지향'의 패턴에 충실하다. 자신의 고백조차도, "다른 남자들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결벽증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거나, 관념적이고 당위적인 이념을 내세워 상대방을 계몽하는 방식의 주장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당위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이다. 이는 자신이 경험하거나 체험한 사실이 아니라 대중들이 공인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실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가령 그는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족'은 '서로의 독립된 자아들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관념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라는 현실적인 사회 관계는 자아 대 자아라는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관계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삼숙의 남자 친구를 만나고서는 오삼숙의 부도덕함을 공격하는 등 자신의 관념적 인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어 보이고 있다. 또 쟁론의 주제인 '사랑'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사랑은 숭고한 것이며, 특히 자신은 정신적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논리로, 정작 자신은 연애를 통해 이권을 챙기고자 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그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핵심은 예절이다. 이것은 쟁론

에서 공적 인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이다. 이 드라마에서 지식인 집단들은 자신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이들에게 널리 알리고 인정받는 방식을 택하는 장면이 4번이나 등장하는 데 이 역시, 이러한 태도와 직접 관련된다.

반면, 오삼숙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는 못하고 타인 말의 거짓됨, 허구적 요소를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쟁론에서 항변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대신한다. 그녀가 자기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체험으로 획득한 자신의 지식이다. 이 체험적 지식은 절대적인 근거가 되고 있으며 단언적으로 주장된다. 그녀의 말에는 논거는 없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걸 모를까봐’하는 식이다. 이처럼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말과 주체의 행위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녀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핵심도 말과 행위의 불일치이다. 그녀의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전반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많다.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하는 식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윤리’ 중심으로 쟁론을 하기 때문이다. 윤리는 가치의 문제이며, 참과 거짓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서 참과 거짓은 언어와 말하는 주체의 관련 속에서, 또 언어와 그것이 지시하는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쟁론 패턴은 오삼숙의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두 사람 역시 시어머니는 교양과 지식인을 자처하고 있고, 반면 친정 어머니는 생활인이라는 점에서 ‘지식인’ 집단과 ‘아줌마’ 집단의 차이를 드러낸다.

<예문3>

#17. 내일. (23회)

옥자 뭐 짐작이야 하실 줄로 믿어요. 아무리 즈이 두 사람 문제라지만, 가족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

송씨 그렇지요....

금금 차 드시면서 천천히 말씀 하세요.

옥자 따님이니까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훈이 엠;가 사실 좀 외골수 예요. 말하지마녀 대화가 잘 안된다구나 할까.

송씨 (외면화고)

금금 용건만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그렇게 하죠...가슴 아픈 애깁니다만. 여자 혼자 몸으루 애 둘을 키운다는 게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저희가 맡기루.

금금 그건 안되죠.

송씨 (외면한 채 끄덕)

옥자 네?

금금 어렵거나 쉽거나 간에, 에미가 애들 키우는 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이시라면 저는 더 안 듣겠어요.

옥자 (본다) 훈이 에미가 모친 내림을 했나 보네요. 그 애두 누구 말을 끝까지 안들어요.

금금 (머쓱)

옥자 물론 애들을 에미랑 떨어지게 할 거를 생각하면 저두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두 용이 났습니다. 까막눈 부모 밑에서두, 불구 쓴 듯이 없는 집에서두, 저만 열심히 하면 수석 합격두 하구 그랬죠. 이 댁 아드님 처럼요.

송씨 아, 아니, 우리는 그렇게 까막눈두 아니구, 또 뭐 호강을 못시켰다 뽀이지 그렇게 적빈하지두 않았어요.

금금 (쫓)

옥자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만 해두 그렇죠. 영어를 늘 쓰구 사는 부모 밑에서 큰 애랑, 아닌 애랑, 비교가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현상은 점점 심해 질텐데. 솔직히 훈이 에미는 그런 점을 받쳐 줄 수가 없잖아요.

송씨 아, 아니.

금금 (가만 찌르며) 말씀 다 읊으세요.

옥자 그러문요... 하나까. 마음이 참 아프시더라두, 애들은 저희가.

금금 그런데요. 거짓말 하는 집안에서 영어 들으며 자라가지구 국제사 기꾼 되는 거 보다는, 영어두 못하구 거짓말두 못하는 에미 밑에 크

는 게 낫지요.

옥자 아, 아니 거짓말하는 집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번에 카바레. 그거 가지구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정말이지. 사부인처럼 밥먹듯이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참. 무안하기두 하구 부끄럽기두 해서 혼자만 알구 있자. 그런 건데. 그걸 가지구 집안 전체를 거짓말쟁이루 몰아 세워요?

금금 글썸. 그 딱 한번. 그것두 내림이 왜가지구 훈이애비가 고대루 물려 받았잖아요.

옥자 뭐예요?

(송씨, 귀를 막으며 나가버린다.)

옥자 대화를 하자구 찾아 온 사람한테 이래두 되는 거예요?

금금 대화를 어떻게 해?

여기에서도 오삼숙의 시어머니 주장의 근거는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담론이다. ‘요즘’, 일반적인 세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식의 당위적이고도 일반적인 상식이 그 근거이다.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진술일 뿐이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직접 겪은 경험을 내세운다. 능력있고 교양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겪은 뒤의 자기 판단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들을 실제로 겪어 보니까, 그들의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물 오삼숙과 장진구, 오삼숙의 어머니와 장진구의 어머니는 각기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니고, 각기 다른 방식의 쟁론을 벌이고 있다.

(3) 화체의 패턴

다양한 쟁론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두 집단은 문체나 어조, 뉘앙스의 구어 표현에도 특징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특히, 화체는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화자의 사회적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29)

29) Kress, *Social Semiotics*, Oxford University. 1988.

먼저, 지식인 집단의 문체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들의 어휘 선택은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어들이 많다. 앞의 예문에서도 ‘독립적인 자아’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외에도 ‘아버지의 존재감’, ‘학문적 동지’, ‘자유’ 등 그 내포와 외연이 넓은 단어가 주로 쓰인다. 그 단어들은 생활적인 측면보다는 사고, 느낌, 내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으며, 공식적이고 당위적인 말들이 대부분이다.³⁰⁾ 이러한 단어는 아카데미즘이라는 공적 상황에서 주로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득권을 획득한 이른바 상징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같은 사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쓰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황이나 청자와 무관하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인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그 집단들만이 공유하는 언어를 모든 상황에 사용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는 강화된다. 곧 자신의 존경, 위엄, 지위 등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어휘들은 이들 집단의 사회적 기득권을 표현하고 나아가 지속시키려는 지식인 집단의 사회적 의도를 드러내는 일종의 ‘사회적 표지’ (social marker)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어휘들은 그 외연과 내포가 매우 크고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의 간극 역시 넓다. ‘애인’을 ‘정신적 동지’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 이면적 의미는 같은 부류의 집단만이 간파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체는 지시적 의미보다는 듣는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함축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권력’과 ‘배제’를 위한 사회적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화체는 어조, 뉘앙스 등에도 나타난다. 이들 어조는 상대방과의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을 때에는 대부분이 낮은 어조, 느린 템포를 유지한다.³¹⁾ 이러한 어조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30) 가령, 극중 오삼숙과 장진구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장진구는 언제나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함에 반해, 오삼숙은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31) 물론 드라마 후반부에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면서 이 틀은 깨어진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체면, 지위 등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려는 ‘권력형 스피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아줌마 집단의 화체는 사회적 거리를 파괴하려는 사회적 의도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선택된 어휘를 살펴보면, 과장되어 있을 만큼 욕설과 노골적인 비하의 일상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편을 ‘장 친구’ ‘둥신’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상대방의 허점을 잡아 의도적으로 조롱하는 이러한 언어들이 웃음을 자아내는 것은, 이들 언어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어휘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사랑이야? 영? 느이끼리 추켜주는 게? 그냥 ‘나 연애가 걸구 싶어 환장했다구’ 해. 그러든 내가 동정은 해 줄 수 있어.”와 같이 그 말은 남편과 아내,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권력 관계에 의해 마련된 대화의 관습을 해체하고 있다. 권력적 관계가 형성해 놓은 ‘거리’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긴장이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녀의 어조는 매우 높고, 템포 역시 빠르다.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않는다. 이와 같은 화체는 기존의 권력 구도를 위반하고, 해체하려는 탈권력의 스피치 패턴을 반영한다.

2) 다양한 수용 맥락들과의 소통

앞의 2장에서, 비판적 인식능력 함양을 ‘비판적’ 매체교육의 한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것은 ‘비판’의 준거를 교사가 미리 제시하거나 아니면 특정 방향의 것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현실적인 다양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자 자신의 주체적인 반성 과정을 중시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반성이 개인 내면, 혹은 개인 체험의 탐구 과정으로 국한된다면, 매체의 공공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³²⁾ 이에 다양한

32) Giroux, H. (1993), "Literac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 Lankshear and p. Laren (eds), *Critical Literacy: Politics, Praxis and the Postmodern*,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매체에서

맥락의 수용 텍스트들을 제공하여 자신의 수용 방식을 반성, 성찰함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집단들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의의를 인정하여 본 연구에서도 드라마 <아줌마>에 대한 수용 텍스트들을 살펴보았다.³³⁾ 수용자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는 못했고, 신문, 잡지 등 다른 매체에 실린 텍스트들 중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³⁴⁾ 특히, 이 드라마는 지식인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사회적 반향과 긍정적인 논쟁”을 유발한 것으로 신문 사회면에 보도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이 드라마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사건임을 보여준다. 쟁론은 특히 드라마의 현실성과 관련된 문제였다.

드라마의 현실성은, 그 드라마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 드라마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³⁵⁾ 현실적이라는 판단은, 변화되는 여성들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교수 집단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³⁶⁾ 하지만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느냐, 또 부분적인 변화를 집단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여러

차이적 문화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33) 드라마 연구에서도 수용 맥락, 수용자 연구는 드라마 텍스트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문제삼는 연구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황인성·원용진 역, 『愛人 T.V 드라마, 문화 그리고 사회』, 한나래, 1997.

34) 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의 일간지와 한겨레 21, 주간 동아 등의 잡지, 교수 신문 등을 참조하였다.

35) 대부분의 일간지는 이 드라마의 성공은 ‘여성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 일부 비평가들도 (전여옥) 이 드라마가 단지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36) 이기홍, “지식인의 위상 쇠락하나”, 2001. 4. 18일. 이 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실제 교수들도 자신들을 지식인으로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회 집단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러한 인식은 드라마 <아줌마> 이후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논조의 문화 비평으로는 김형준의 글(세계의문학, 2001 여름호)이 있다.

반대의견³⁷⁾이 제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은 여성들의 수용 텍스트나 지식인 논객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전자는 이혼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드라마와 같은 명쾌한 이혼’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³⁸⁾을 지적하고 있다. 또 드라마의 당위적 도덕론과 경직된 선·악 이분법(아줌마=선 : 지식인=악) 도식을 비판하는 입장³⁹⁾도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을 과도하게 영웅화하여 그 발달과정 내적 타당성이 없으며, 억지스러운 즐거이를 통해 오히려 여성 독자들을 편하, 혹은 대리체험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식인 집단을 너무 과장된 회화화 기법으로 처리하여 그 전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수용 텍스트들을 접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의 읽기가 전체 구성원들 속에서 어떠한 사회 문화적 위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자신의 읽기 문화를 성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수용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습자는 자신의 맥락 속에서 이 텍스트들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맥락, 곧 자신의 현실적 체험과 자신의 주체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매체 텍스트를 평가하거나 매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생산 맥락 속에서의 평가

앞에서의 활동이 수용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었다면, 동시에 ‘생산’의 맥락을 고려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매체에 재현된 언어들이 실제 사람들의 현실적인 언어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특정 집단의 시각에서 선택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폭넓은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37) 김명혜, “교수의 눈으로 본 드라마 <아줌마>”, 교수 신문 2000. 12. 18일

38) 2001. 2. 11일의 “시사매거진 2580”에 인터뷰한 주부의 말이 대표적이다.

39) 김영현, 정파리 등의 논자가 대표적이다.

생산의 맥락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드라마’ 생산에 개입하는 제도적 장치, 장르적 코드, 다른 텍스트들과의 상호관련성 등등이 있을 터인데, 이 글에서는 특히 다른 매체 텍스트들과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어떠한 매체 텍스트도 다른 텍스트와의 직, 간접의 관련을 지닌다. 분명한 영향 관계를 논하지 않더라도, 동일 대상이 상황에 따라, 매체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현상을 비교, 평가한다면, 학습자는 이 드라마가 어떠한 시각에서 이들 언어를 재현하는지, 또 그 시각은 어떤 집단, 어떤 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를 비판, 평가할 수 있다.

교사는 동일 대상을 재현하는 여러 텍스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남성 지식인 집단’과 ‘여성 민중 집단’의 대화 장르가 그것이다. 비교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 하나는 시대 상황의 차이를 중시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매체 장르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가령, 전자의 방법에서는 30년대 심훈의 <상록수>나 이기영의 <고향>과 같은 작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방법으로는 영화 <그들도 우리처럼>에서 지식인 남자와 창녀 출신 여자와의 대화 장르를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드라마에 재현되고 있는 특정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스피치 패턴을 자신의 맥락에서 평가하고, 수정하거나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집단에 따라 차이나는 다양한 문해력들을 공공성의 장에서 소통하고, 참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이 글은 대중매체가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논의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체성' 범주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매체교육은 문해력이 개인의 인지 활동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과정에서 형성되는 실천적 활동의 하나로 인식되는 순간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 대중매체는 바로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주도하여 특정의 언어사용 방식을 관습화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은 매체에 재현되는 당대 언어문화를 비판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는 '미디어 장르' 중심의 매체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문화적 '정체성' 범주를 중심으로 하여 문해력의 사회, 문화적 성격과 매체 텍스트를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였다.

그 구체적인 연구 결과로 T.V. 드라마를 텍스트로 하여, 구어적 표현에 중요하게 개입하는 사회적 정체성과 스피치 패턴의 연관성을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정체성'은 언어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 문화적 삶을 형성하는 기능을 살피고 나아가 다양한 집단의 차이나는 언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화법(표현)교육에서 매우 유의미한 범주이다. 특히, 직업, 계층, 성별 등 사회적 역할과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정체성은 대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의 언어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화자의 직업, 계층, 성별이 무엇이며 이들 집단을 그 사회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화 참여자의 역할이나, 그에 따른 대화 교대 순서와 대화 진행 패턴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T.V. 드라마 <아줌마>를 텍스트로하여, 학력과 성별 차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고학력 지식인 남성 화자'와 '저학력 여성 화자' 사이의 스피치 패턴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아줌마> 드라마에서는 는 전자는 권력 중심의 스피치 패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후자는 윤리 중심의 스피치 패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패턴의 차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언어문화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러한 패턴이 실제 현실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드라마라는 대중매체의 시각에 의해 재현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중매체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재생한다는 비판적 관점에 따르면, 드라마에 재현된 내용은 진실이나 사실이 아니라 특정의 관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줌마>에 재현된 두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드라마의 재현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고 다시 고쳐 써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드라마를 텍스트로 한 화법 교육은 다시 비판적 미디어 교육의 방법과 결합할 필요가 있었다. 비판적 미디어 교육의 방법을 수용하여,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작업과 함께 다른 수용 텍스트나 생산 텍스트들과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적인 의견을 생산할 수 있는 과정으로 입안하였다. 매체교육이 타인들의 차이나는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공적 감각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면, 학습자들이 이 스피치 패턴을 이해하면서도 매체가 생산, 혹은 재생산하는 정체성을 자신의 맥락에서 비판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표현 변이체를 유형화, 체계화하는 일은 국어교육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 나의 표현 의도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하는 식의 개인인지 중심의 표현교육은 같은 모어 화자라하더라도 다양한 변이체를 지니고 있다는 이론적 연구 결과와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표현의 선택은 ‘나’라는 주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과 전혀 다른 집단과의 유연한 소통을 위해서 이 다양한 변이체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언어 문화 자원(resource)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김동환 · 이도영 · 염은열 · 서유경(2000),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 서울대학교 교육종합 연구원 국어교육 연구소.
- 김훈순(1999), “텔레비전 드라마와 신문 텍스트 담론”, 『텔레비전 문화 연구』, 한나래.
- 박인기 외(2000),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 임칠성, “국어화법의 성격 고찰”, [www. language-culture.net/koredu.html](http://www.language-culture.net/koredu.html).
- 이창덕 · 임칠성 · 심영택 · 원진숙(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더글라스 켈너, 김수정 · 정종희 역(1997), 『미디어 문화』, 새물결.
- 최인자(2000), “장르의 경쟁성으로 본 서사표현의 문화원리”, 『국어 국문학』 127호, 국어국문학회.
- 황인성 · 원용진 역(1997), 『愛人 T.V. 드라마, 문화 그리고 사회』, 한나래.
- Bernard Spolsky, *Socio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김재원 · 이재근 · 김성찬 역(2000), 『사회언어학』, 박이정.
- Bakhtin. M. W. & McGee(1988),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University of Texas Press.
- Giroux, H.(1993), “Literac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 Lankshear and P. Laren (eds), *Critical Literacy: Politics, Praxis and the Postmodern*,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Donna E., Alvermann & Margaret C. Hagood(2000), “Critical Media Literacy :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in ‘New Tim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Jan/Feb. Vol. 93.
- Franz Hundsnurscher(1995), “Some Remarks on the Development of Dialogue Analysis”, *Future Perspective of Dialogue Analysis*.
- Hobbs Renee(1996), “Expanding the Concept of Literacy”, Kubey

- Robert(Ed), *Media,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Transaction Press.
- Hobbs Renee(1998), "The Seven Great Debates in the Media literacy Mov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Winter*.
- Justin Lewis & Sut Jhally(1998), "The Struggle Over Media Literacy", *Journal Of Communication Winter*.
- James A. Brown(1998), "Media Literacy Perspectives", *Journal Of Communication Winter*.
- John J. Gumperz(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 J. Gumperz Edt(1982). *Language and Social Ident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mes Paul Gee(1996), *Social Linguistics and Literacies*, Taylor & Francis.
- Luke Carmen(1999), "Media and cultural studies in Austarilia",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 Klaus R. Scherer & Howard Giles(1979), *Social Markers in Spee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ess(1988), *Social Semiotics*, Oxford University.
- Donna E., Alvermann & Margaret C. Hagood(2000), "Critical Media Literacy :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in 'New Tim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Jan/Feb. Vol. 93

<초록>

사회적 정체성과 스피치 패턴의 연관을 중심으로 한
T.V. 드라마 교육

최 인 자

본고는 매체교육의 국어교육적 위상을 정립하고 그 교육 내용 범주로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문해력의 범주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드라마를 텍스트로 하여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스피치 패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 말하기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매체교육의 이론적 기반 마련을 위해, 문해력 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관점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대중매체 교육의 중요성을 논증하였다. 연구 결과, 문해력은 담론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과정 속에서 획득되는 것인데,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당대의 기호환경을 형성하여 당대 언어 문화를 재현, 생산하기 때문에 이에 창조적으로 대응함으로써만이 개인의 국어능력 역시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입론화하였다. 이런 입론을 바탕으로 하여, T.V 드라마를 텍스트로 하여, 구어적 표현에 중요하게 개입하는 사회적 정체성과 스피치 패턴의 연관성을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정체성'은 언어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 문화적 삶을 형성하는 기능을 살피고 나아가 다양한 집단의 차이나는 언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화법(표현)교육에서 매우 유의미한 범주이다. 특히, 직업, 계층, 성별 등 사회적 역할과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정체성은 대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드라마 <아줌마>는 성별, 학력별에 따른 지식인과 아줌마의 스피치 패턴이 드러나는바, 전자는 권력 지향의 패턴이고 후자는 윤리 지향의 패턴이다. 권력 지향적 스피치는 상대방에게 권력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내용과 형식의 선택이 이루어지며, 자기 집단의 결

속력과 다른 집단에 대한 배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윤리 지향적 스피치는 진정성을 중시하며 상대방과의 교류, 진실, 정의를 위한 말하기가 강조된다. 물론 드라마 인물들의 언어에는 사회적 전형성과 개인적 고유함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 이들의 비율은 드라마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바, 드라마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과 스피치 패턴의 연관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드라마 텍스트를 놓고 이들 인물의 계층별, 성별, 직업별 공통점에 따라 유사하게 반복되는 스피치 패턴을 분석하는 작업을 기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일상 언어를 텍스트로 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는 대중매체를 텍스트로 한 것이기에 비판의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그 드라마에 대한 다른 집단, 다른 사람들이 반응한 수용 텍스트나 동일 집단에 대한 다른 매체, 다른 텍스트들의 생산 텍스트를 동시에 비교, 대조하고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작업이 이후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집단들과의 소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핵심어】 사회·문화적 정체성, 스피치 패턴, 매체교육, 드라마, 권력 지향의 스피치, 윤리 지향의 스피치.

<Abstract>

A Study on the T.V. drama education

Choi, In-Ja

The task of this essay is to construct the contents of speech education with regard to mass media education. The central problem is speech pattern in relation to social identity in T.V drama. Solving problem, first above all, this essay establishes theory that the quality of mass media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contemporary language culture. Particular speech pattern is related to social identity which is formed in social position and social role of vocation, stratum and sex. Drama Ajumma is represented of speech pattern of intelligent and female people. The former is power oriented speech which seeks the exercise of power to other and exclusion of other group. The latter is ethics oriented speech which seeks authentic and group solidarity. This pattern is not real but construct. So, the student need to critically decided. Achieving this aim, student needes to consider other response of receiver and other production context.

【Key words】 social cultural identity, speech pattern, mass media education, drama, power oriented speech pattern, ethics oriented speech pattern.